

대학 고전시가 교육의 선택과 배제*

서철원**

<차례>

1. 논제의 설정
2. 강의실 안팎의 동향과 교육과정의 선택
3. 교재 개발 과정에서의 작품 선별과 배제
4. 배제와 선택의 사이에서

<국문초록>

전국단위 평가에 따라 표준화, 획일화되어가는 중등, 사범 계열에 비하면 지난날 국어국문학과와 고전시가 교육은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 국문학자들이 살아남은 고전 작품을 마주하며 느꼈을 민족주의적 감격은 오늘날의 학도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일부 고전시가 작가는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교육과정은 ①강독(초급)에서 이론(고급)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거나, ②혹은 신라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장르별로 깊이 살피거나, ③여기에 더해 원전 강독이나 심화, 확장 과목까지 마련하는 등 학과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어국문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2/3 이상이 1개 과목만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의실 바깥의 노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고향을 소재 삼은 대중가요를 매개 삼아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 제재에 관한 호응과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강의실 안의 젊은 세대에까지 공감을 얻는 일은 여전한 과제였다. 근래에 출간된 2권의 공저는 과거 교육과정이 지녔던 ①강독(초급)에서 이론(고급)으로, ②신라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흐름을 각각 보여주고 있어, 과거 현장의 체험이 축적된 양상을 오롯이 전해주고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 고전시가 과목이

* 이 글은 2022년 2월 16일 한국고전연구학회 121차 동계학술대회 기획주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맡아 주셨던 하윤섭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계의 공동작업으로서 이들 공저가 선택하고 배제했던 작품의 목록은 참고할 가치가 크다. 그렇지만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중등교육에서 행사하고 있는 권력 탓에, 학술계의 논의보다 저들이 선택한 작품을 사범 계열 나아가 국어국문학과와 교육에서도 우선하게끔 한다. 저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난삽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을 선택하지 않게 할 장치가 요청된다. 또한 공저의 다양성 못지않게 1인이 집필한 일관성 있는 교재 개발도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지식으로서 고전시가를 읽혀 설득하겠다는 태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 분석과 호응의 사례에 주목해야 하겠다.

주제어 고전시가, 문학교육, 고전시가 교육, 교육 방법론, 고등교육

1. 논제의 설정

이 글에서는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고전시가 교육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관한 모색을 시도하겠다. 학회의 의뢰에 따라 사범 계열 국어교육과 및 중등교육에 관한 내용은 논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루겠다.

그런데 전국단위의 평가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중등, 사범 계열과는 달리¹⁾, 국어국문학과와 수업은 아직은 대학과 교수의 재량에 따른 차이가 꽤 있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대학마다 담당 교수에게 설문이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듣고 유형화하는 방식은 그리 유용하지 않겠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교육과정과 목적이 균일하지 않

1) 2010년 수능 이후 축적된 EBS 방송의 수능 연계, 그리고 1998~2017년의 4주기에 걸친 사범대학 평가가 이런 비자발적인 표준화 혹은 획일화의 경향을 부채질해 왔으며, 교수와 학과 위에 군림하는 국가 권력과 학교 바깥 사교육의 권위를 키워왔다. 교재 집필 회의 중에 이런 식의 획일화를 분서갱유에 비유하는 현직 교사의 말을 들었던 적도 있었다.

기 때문이었다. 한국문학 개론서²⁾와 고전시가 작품론³⁾ 교재 역시 그런 고민을 반영해 왔다.

이 글은 현장에서 겪은 체험담의 비중이 커서, 학술적 목적을 뚜렷이 내세울 수는 없다. 그 대신 학생들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옛 시인들의 경험⁴⁾과 생각이 전혀 무가치하지만은 않다는 변명을 거듭해야 했던 고충과 더불어, 이따금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장에서는 국어국문학과와 고전시가 교육의 지난날을 회고하고자 한다. 고전시가 연구의 태두라 할 만한 조운제가 국문학 수업을 대했던 자세와,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전시가를 마주하는 학생들의 태도 사이의 거리감을 살피겠다. 이 거리감은 오늘날의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거리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운제의 감격과 함께 출발했던 시절부터 고전시가 과목이 학과의 개성과 지향점에 따라 여럿 개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점점 그러기 어려워져 가고, 게다가 사범대학 평가와 EBS 수능 연계 등의 영향력으로 교육과정의 표준화, 획일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재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3장에서는 바람직한 교재 개발의 방향을 구상해 보겠다. 학생들의 경험을 고전시가의 내용과 연결해 보겠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⁵⁾ 이를 강조한다면 새삼스러

2) 조규익 외,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2015, 29~226쪽.

3)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고전문학작품론 3: 고전시가』, 휴머니스트, 2018, 1~628쪽.

4) '경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전과 현재 사이의 시간차를 극복하지는 제언은 최홍원, 『고전문학 경험교육론』, 역락, 2015, 15~179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30~36쪽에서 언어와 텍스트를 통한 경험이 문학교육의 범위로서 중시되었으며, 언어를 도구로 대하는 편협한 언어관을 벗어나 세계를 구성하는 언어의 인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36쪽).

5) 고전시가와 현대시 혹은 대중가요를 짝지어 서술한 저서들이 그러하다. 나정순, 『우리 고전 다시 쓰기 - 고전시가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삼영사, 2005, 1~355쪽; 엄은열 외,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작품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520쪽.

을 지경이다. 두 차례 집필된 공저들은 각각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학계가 합의한 교육 대상 작품의 소중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EBS 연계를 비롯한 수험 대상 범위의 선별 역시 이런 합의의 성과를 반영하며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전시가 작품의 선별과 교육 내용 자체에 학생들의 특성이 얼마나 고려되었는지 돌이키고자 한다. 고전시가의 주요 소재였던 자연과 이별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과 경험은 예전 세대와 달라졌는데, 관행적으로 중시했던 강호가도와 기녀들의 사랑을 낯것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시도의 사례 일부를 제시해 보겠다.

2. 강의실 안팎의 동향과 교육과정의 선택

1) 조운제와 오늘날의 젊은 학도

고전시가 연구는 다른 한국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조선시가사강()』(1935년 탈고)을 통해 고전시가 장르와 그 역사를 통째로 정리했던 조운제는, 첫 국문학사 강의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아아 8 15 ! 드디어 우리의 의 날은 왔다. 에
서 우렁차게 부르짖는 소리는 의 을 흔들었다. 는
에서 모두 한데 모이어 를 하고, 는 붓을 몰아 의 을
하였다. 이때 나는 에 뛰어올라 의 젊은 를 앞에 놓고 소리
높이 우리의 를 하였다.

실로 한 일이다. 나는 의 첫 시간을 마치고 내
에 들어가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내 옷깃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뒤에
알았다. 한 36년의 은 우리의 를 하려 하였고, 우리의

를 짓밟아 망그러뜨려 없애려 하였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밑에서 하
 던 우리가, 또 내가 어찌 오늘날 우리의 로 우리의 를 우리의
 에서 할 줄 알았으리요, 오늘이 있을 줄은 믿음으로써 우리는
 알았지만은 하고 본즉 모두가 뿐이다. (중략)
 그러면 이 한 도 나의 의 한 요, 또
 의 을 위한 이 될 것이다. _____ 의 _____ 에 올려 그
 _____ 에 _____ 의 뜻을 하고 _____ 앞에 드리어 히 _____ 을 구한다.⁶⁾

‘동포의 젊은 학도’ 앞에서 강의하는 우리네 일상이 얼마나 그분들의 꿈
 에 그리던 일이었던가 생각하면 숙연해진다. 그리고 그 강의와 교재 개발
 이 순국선열의 영전에 올릴 일이며, 온 동포가 함께 읽고 검토할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위대한 목표는 한때 학교마다 내걸렸던 ‘국어사랑 나
 라사랑’⁷⁾의 표어로 각인되었다가 산업화와 정보화에 밀려 아득해졌을지라
 도, 이 진지한 열정만은 고전 교육의 근본으로 모두 공감하리라. 이 서문은
 국문학사 과목에 관한 자료이지만, 고전시가 교육에 대한 조운제의 신념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꼭 한 세기가 흘렀다. 조운제가 감격하며 마주했던 ‘동
 포의 젊은 학도’들은 이제 고전시가를 이렇게 평가하곤 한다.

지가 무슨 원래 신선이었는데 / 전생의 연분으로 지금 현세에서 고생하는거
 라고 깎죽거리는 고전시가들 / 작자들 조사해보면 다 죄짓고 귀양가서 쓴 시조
 들임.

이게 발 말이 되냐.

6) 조운제, 『
』, 탐구당, 1987년판(초판 동국문화사, 1949), 9쪽 서문.
 7) 민족주의적 강령과도 같았던 이 용어가 법조계에서 국민을 위해 명료한 법률 용어와
 법령을 제시하지는 운동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듯하다. 권태웅, 「국어사랑 나라사랑-
 공공언어로서의 법령」, 『법제』, 법제처, 2022, 7~9쪽.

솔직히 말해서 고전시가 대부분이 / 현대로 비유하자면 정치인들이 선거 처
발리고 트위터에서 헛소리한걸 / 학문이랍시고 배우고 있는거임.

그냥 밑도끝도 없이 산에 올라갔더니 바위가 춤을 추고 바다가 용솨음치고
랄지 / 내가 신선인데 북두칠성을 잔 삼아서 바다를 들이키고 랄지 /
신새

누구보다 욕심없는척 하지만 작가의 인생을 조사해보면 / 누구보다 정치에
욕심 많아서 권력에 집착하다가 떠난 전형적인 탐관오리새 들임.

그러니까 시를 읽어도 와닿지가 않고 진실성이 안 느껴지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좋아하지도 않는 국밥 맛있는척하면서 먹는거 보면 아
무것도 안 느껴지듯이 / 평소엔 자연에 관심도 없는 새 들이 죄짓고 쫓겨나니
까 부라부라 청빈한척 안빈낙도하는척 하는 글이 어떻게 와닿겠냐?

이딴걸 내가 왜 배우는건지 진짜 / 수능 뺨에 어쩔 수 없이 보고는 있다지만
진짜 이딴건 문학이 아니다⁸⁾

출처 사이트의 과격함 탓에 비속어가 많이 섞여 있지만, 글쓴이는 아마
정철의 <관동별곡>을 읽은 뒤 정철의 생애를 알고 느낀 환멸감을 ‘문학이
아니다.’라며 조롱하고 있다. 그 와중에 오늘날 정치인들의 가식적 SNS와
강호가도 소재 시가 사이의 공통점도 나름 발견하였고, 시인은 진실하고
시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당한 문학관도 내세우고 있다. 표현이
거칠고 과격할지언정, 학생 나름의 조사와 공부 끝에 내린 결론이다. 글쓴
이의 진심과 진정성을 그저 ‘네가 고전시가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치부
하며 야단치면 그만일까? 어쩌면 서정주의 시를 읽고 감명받았던 이들이
나중에 작가의 일생을 알고 나서 느꼈던 당혹감과도 그리 멀지 않다.

저 글을 알고 충격과 고민에 휩싸였던 찰나에, 우연이겠지만 누가 대학

8) 「지가 무슨 신선이랍시고 깎치는 고전시가 진짜 개역겹지않냐」(디씨 인사이드 문과
마이너갤러리, 2021.11.11.) 이글은 2023년 4월 15일 현재 추천 222, 비추 8의 호응을
얻었다. 원문의 띄어쓰기 오류는 고치지 않았지만 비속어 일부를 ‘○’로 표시했다.

원 진학에 관한 문의를 해 왔다. 국어교육 전공으로 석사까지 받았는데, 학생들이 송강 정철을 너무 미워하는 게 마음에 걸려 박사과정에서 더 연구하여 송강 시가의 아름다움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뜻이었다. 학생들의 그런 혹평에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생각해 보고 다른 분으로 지도교수를 택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었다.

저 학생과 조운제 사이의 거리는 자명하다. 학생은 오늘날의 우리가 공감할 만한 진심과 진정성을 지닌 고전 작품만이 교육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조운제는 한국 고전은 수난의 역사 속에 살아남았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전 작품을 존중해야 할까? 슬프지만 그런 시대는 진작 지나버린 걸까?

그렇다면 저 학생과 조운제 사이에 공감의 영역이 형성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작품에는 진심이, 작가는 진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보편적 기준에는 동의할 듯하다. 그렇다면 진심과 진정성을 지닌 작품만을 교육의 소재로 삼으면 되겠지만, 학생들이 공감할 ‘진심’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도 그리 만만하지 않다.

초기 연구와 교재의 영향력은 한 세기가 지나도 여전한 면이 있다.⁹⁾ 개별 작품 주석에서 오류가 반복, 재생산된다는 건 문제지만, 조금만 유의하면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니다. 조운제를 비롯한 초기 학자들의 위대한 유산이기도 한 그 영향력의 근본 문제는 고전시가를 민족성,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줄기로 이어지는 단일 민족의 민족혼과 동일시하려는 자세였다.

9) 향가에 한정된 것이지만 박재민, 「교과서에 나타난 향가 교육의 문제 - 「서동요」의 ‘ ’와 「찬기파랑가」의 ‘조약돌’을 대상으로」, 『한국시가연구』 38, 한국시가학회, 2015, 73~100쪽(박재민, 『해독과 해석-향가, 여요, 시조, 가사』, 태학사, 2023, 313~335쪽 재수록.)에서 초기 교재의 잘못된 서술이 아직도 각종 교과서와 교재에 버젓이 실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고전시가 연구서의 서문에서 그런 태도는 매우 흔했다. 한민족의 아기는 한국의 자장가를 들을 때 더 잠이 잘 든다는(김학성) 말은 그제 신앙처럼 성장한 결과이며, 소설이 도시의 것이라면 시가는 향촌의 것이라는 발상(최재남) 역시 민족을 더욱 좁혀서 향촌 사족층에 집약시킨 말이었다. 애초에 겨레가 친족과 동의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이 향촌 사족으로 대체되는 모습은 꽤 그럴싸했다. 그러나 한 줄기 단일 민족보다는 다문화율, 로컬보다는 국제화된 글로벌을 내세웠던 근래의 유행과는 꽤 멀다. 기본 타이겟지만 다문화와 글로벌을 자주 부르짖을수록, 고전시가의 역할은 차츰 줄어들었던 것도 같다.

고전시가 전공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가곡창을 오랜 시간 직접 전수했던 인간문화재 조순자는 가곡의 기원이 삼국 시대 이전 그리고 향가에도 있다고 믿는다.¹⁰⁾ 이렇듯 향가의 형식이지만 그 정체도 아리송한 3구 6명을, 시조의 3장 6구와 비슷한 무언가로 상상하는 게 오늘날의 통설이다. 저 통설이 굳어진 뒤로 3구 6명을 아예 학계에서 다루지 말자는 불문율도 한동안 있었다.¹¹⁾

향가에서 가곡으로, 가곡에서 다시 시조와 현대시조로 이어지는 한 줄기 역사가 가곡의 ‘천 년 역사’라면 멋질까? 그렇게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가르치면 좋을까? 향가가 실려있는 『삼국유사』만 보아도, 아니면 어느 지역 박물관의 고대 유물 유적을 찾아보더라도, 한민족이 원래 단일 민족이었다

10) 2009년 7월 8일 이래로 최근까지 여러 방송과 강연에서 가곡을 ‘천년의 노래’라 지칭하고 있다.

11) 그러나 3구 6명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한시의 5언 7자와 대응하는 것이므로, 3구와 6명은 각각 다른 두 가지 형식이 되어야 한다. 마침 향가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남아있다. 짧은 향가는 『삼국유사』 원문에는 대개 석 줄, 3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긴 향가를 6이라는 숫자와 연결할 단서를 찾으려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3과 6이라는 숫자를 향가와 시조가 공유하고 있다는 첫인상에만 집착하고 말았다. 그리고 사실 가곡은 5장이므로, 3과 6이라는 숫자가 초기 시조 형식에 그리 절대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고는 생각할 수 없다. 설령 어느 한 민족이 천년 넘게 하나의 장르만을 지속해 왔더라도, 그 장르가 위대하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그 민족이 얼마나 다른 문화와 교류하지 않고 홀로 독존()해 왔던가를 반성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한다.

고전시가의 역사가 한 줄기로 이어져 가곡(=시조)으로 꽃피웠다는 시각은, 한국학 연구가 독립운동이고 한민족이 외세에 맞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우리가 한국학 연구자로서 물려받은 한 유산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시대에 나고 자란 학생들에게 이를 수용하라고 설득할 근거는 다시 찾아보아야겠다.

2) 지난날의 고전시가 교육과정

그래도 민족혼을 중시했던, ‘국어사랑 나라사랑’의 시대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중세 국어문법이며 향가, 고려속요, 심지어 두시언해까지 열심히 배웠다. 그 선행학습(?) 덕분에 대학도 고전시가 과목을 여럿 개설하고 때로는 원전도 읽을 수 있었다. 졸업하면 취업도 대체로 잘 되는 편이었으므로, 취업과 무관한 전공 공부도 열심히 했던 ‘지난날’이었다. 그 지난날의 고전시가 과목은 다음의 ①~③유형으로, 여전히 1/3 정도의 대학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기초와 심화(고전시가강독+고전시가론) 또는 유사 방식으로 2과목 구성 (8곳)

: 서울대, 경북대²⁾, 전북대, 강원대³⁾, 안동대⁴⁾, 가천대⁵⁾, 아주대, 경성대 등.

12) ‘고전시가론→고전시가사’의 과정으로 좀 다르게 구성되었지만, 작품 이해를 기초 삼아 배경지식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3) ‘고전시가강독→고전시가와 전통예술’로 심화보다 전통문화 일반으로의 확장을 지향한다는 특색이 있었다.

14) ‘고전시가론→시조가사론’으로 조선시대 시가에 특화하는 방향이다.

향가여요+조선시대 시가 2과목 구성(13곳)

: 이화여대, 홍익대, 세종대, 성신여대, 단국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창원대, 조선대, 청주대, 순천향대, 백석대 등.

위 가운데 하나를 취하면서 심화된 강독/이론/역사/융복합 과목 개설(다년 주기 포함, 7곳)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충남대, 영남대, 한림대 등.

전 과정에서 1과목만을 개설(41곳)

: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명지대, 가톨릭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방송대, 부경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인천대, 교통대, 군산대, 강릉원주대, 동아대, 한남대, 인하대, 계명대, 울산대, 경기대, 대진대¹⁶⁾, 성결대, 수원대, 한신대, 상명대, 동의대, 원광대¹⁷⁾, 대구대, 대전대, 선문대, 상지대, 연세대(미래) 등. 개설하지 않음(6곳)

: 서경대, 안양대, 배재대, 호서대, 전주대, 목포대 등.¹⁸⁾

이 가운데 복수 과목을 운영하는 ①~③이 지니는 특징을 각각 생각해 본다.

①은 초급 과목으로 작품을 읽고, 고급 과목에서 배경지식과 학계의 성과 등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과목별 위계가 확실하다면 수강생의 목적과 교수자의 의도가 일치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그러나 초급 과목의 이수가

15) ‘고전시가의 이해→시조의 이해와 창작’으로 시조에 특화된 심화와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6) 과목명: 조선시대 문화와 노래의 재해석.

17) 과목명: 한국 가요문학의 이해.

18) 이상은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사립 대학 등의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과목 현황을 참고하였다. 한국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전공은 취지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제외했으며, 고전시가를 교과목 이름으로 편성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고전문학 전체를 포괄하는 강독이나 특강 등의 과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제된 게 아니므로, 초급을 듣지 못하고 고급 과목을 듣는 수강생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렇게 개설하는 학과의 경우 고전소설 역시 이론과 강독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고전소설은 이론 과목에서 줄거리를 알고 강독 과목에서 원전을 접하는 흐름이기도 했다. 그런 차이에 대한 수강생의 이해도 필요하다.

②는 장르별로 나누었는데, 고려 이전과 조선 이후의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기도 하다. ①의 방식이 초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던 것과 달리, 이 방식은 수강생과 교수자의 준비가 충분하다면 개별 장르에 관한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대신 고전시가의 전모를 한자리에서 논하기 어려워진다. 이를테면 한국 시가의 모든 시기마다 등장하는 여성 화자의 변천 양상 같은 주제는 이런 방식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③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년 주기 개설 과목을 여럿 운영하지 않는 이상 운영이 쉽지 않다.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개설 과목이 고정된 대학보다는, 매 학기 개설 과목을 자유롭게 선정하는 학교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 장르별로 세분되거나 대중가요와 콘텐츠 등을 고려한 융복합 성격의 과목도 많은 편이었는데, 개설 주기는 다소 불규칙해 보였다. 과목별로 학생들의 호응도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특정 과목이 소외 또는 반복 개설되는 등의 불균형도 있을 수 있다.

이제 ①~③의 방법 가운데 어떤 쪽이 효과적일지 따져보는 게 순서겠지만, 대학원에서 후속 세대 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과가 아닌 이상 그런 논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어국문학과를 운영하는 위 대학의 2/3 이상이 고전시가 과목을 1개로 줄이거나, 아예 개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①~③은 차츰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출산 탓으로 예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국어교육과가 국어국문학과

보다는 취업률을 비롯한 형편이 좀 나았다고 했다. 그런데中等교육에서 전국단위 평가가 이루어지듯이, 꽤 오래전부터 사범대학은 전국의 사범대학과 경쟁하여 평가받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은 좋게 말하면 표준화, 나쁘게 말하면 획일화되었는데, 대개 고전시가는 1과목뿐이었다. 오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국어교육과는 ‘시가교육론’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1과목으로 합친 듯했다. 고전시가를 가르칠 교수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그랬을까 싶었다. 혹은 어느 국어교육과 커뮤니티의 ‘문학박사가 아닌 교육학박사만이 우리 과 교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나, 문학교육을 국어교육에서 퇴출하자던 어떤 움직임 등이 떠올라 예사롭지 않게도 보였다. 여하튼 형편이 좀 낫았던 국어교육과가 고전시가 과목을 1개 또는 1/2개로 줄이다 보니, 국어국문학과가 ①~③에서 하나를 선택할 여지는 이제 별로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중 전공과 복수전공의 일반화 경향이었다. 학생들의 전공이 여럿이다 보니, 과거에 비해 1개 전공의 수강학점이 대폭 줄었다. 20세기 말엽 대개 6~70학점 내외였던 전공 이수학점이 지금은 39학점인 경우도 있었다. 20개 이상 들던 전공과목이 13개로 줄었다면, 그만큼 개설 과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전을 접할 기회도 사라져간다.

전국에서 국어국문학과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방송대학 역시 얼마 전까지 ①의 방식으로 ‘강독→이론’의 절차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고전시가론 하나만 남기고 고전의 모든 강독 과목을 ‘고전문학강독’ 1개로 통합했다.¹⁹⁾ 방송대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소속 학생 수가 전국 최다라서이기도 하지만, 방송대의 교재가 중등교원 임용 준비나 대학원 입시 등의 참고서

19) 국가가 정한 ‘표준교육과정’인 학점은행제도 역시 고전시가론 1개뿐이었다. 그러나 한문학 과목은 한문학입문, 한국한문학, 고전한시입문 등 3개나 된다. 한문학 과목을 3개 개설할 만한 상황의 국어국문학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문학만은 최소한 3과목이 표준교육과정에 필요하리라는 관계자들의 판단이 흥미롭다. (출처: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nStdPro1_1.do)

로 사실상의 표준 역할도 부분적으로 맡아왔다는 점에도 있다. 그러므로 방송대의 고전시가강독 교재가 절판되고, 고전시가론 교재가 재편성된다면 그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여기서 잠깐 방송대의 현행 고전시가론 교재를 살펴보자. 2006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통상 4~5년 주기로 방송대의 교재 개편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에 비추면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개편이 멈춘 상태이다. 이 교재는 총론에 이어 상대시가, 향가, 속요, 경기체가, 약장, 시조, 가사, 잡가 등 장르별로 나누어 각각 다음과 비슷한 체제로 서술하였다.

명칭, 개념

형식, 향유 계층

역사적 변천 양상

주제와 내용(속요, 시조, 가사는 작품도 소개)

이렇듯 지식과 연구성과 중심의 서술이었으며, 『조선시가사강』 이래의 전통적 방식과도 상통했다. 특히 시조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 내용까지 다루어졌다. 그리하여 임용시험 준비는 방송대의 강독 교재가, 대학원 준비는 이론 교재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왔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강독 과목이 사라지면 제목은 고전시가론 그대로일지라도, 작품 인용과 분석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3장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근래에 발간된 고전시가 교재는 지식이나 배경보다는 작품 자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는 교원임용시험 시장 자체를 노린 것도 있는데, 국어국문학과와의 교육 현황 및 전망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1과목만 유지해야 할 때, 우리가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작품-자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3) 대학 강의실 바깥의 고전시가

고맙게도 고전시가 과목을 수강하고 다른 과목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이 간혹 있었다. 과목이 1개뿐이고 대학원도 온전히 운영되기 어려웠던 대학에 재직했던 시절에는 이걸로 그냥 끝이라고 선언하는 게 이쉽고도 미안했다. 지금은 그런 학생을 만나면 그 같증이 정녕 진심인지 물어본 다음, 대학원 과목 수강을 권하기도 한다. 아마 다른 전공을 위해 마련되었을 터인 학-석 연계 제도 덕분이다. 어떤 대학에서는 학-석 연계 과목을 아예 따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학부생들이 더 듣지는 않고 그냥 대학원 과목처럼 되어버렸다. 그래도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가 부제로 달린 과목이 개설되면, 요즘처럼 학점이 중요한 시대에도 대학원 과목 수강이라는 도전을 무릅쓰는 모습이 기특했다.

이런 인연은 참으로 귀하다. 국어국문학 전공을 살려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중에도 고전문학을 살리기란 더욱 요원하다. 필자는 첫 직장의 첫 제자에게 첫 학기 초에 이런 말을 들었다.

국어학은 맞춤법도 배우고 지식이 늘잖아요. 현대문학은 작품을 읽으면 공감
이 돼요. 근데 고전문학은 왜 배우나요?

사범대학 같으면야 임용시험에 나오니까 배운다는. 수동적이지만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어국문학의 고전문학 과목은? 그 이유를 찾아 학생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절하다. 그리고 기껏 찾은 이유에 나 자신이 정말 수긍하는지 자기 점검과 검열을 거듭 되새김질한다는 점에서 비참하다. 저 때는 일단 대답하기를, “모든 고전 작품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작품도 있다. 그게 어떤 작품인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했다. 그 학생이 수업에서 그런 작품을 찾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아마 못 찾았겠지만, 현대문학을 읽을 때면 느꼈다는

저 공감이 한 단서였던 것도 같다.²⁰⁾

결국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공감할 수 없는 작품을 배제하자는 단순명료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학생들이 공감하기 이전에, 교육자 자신은 고전시가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었을까?

아예 강의실 바깥의 강연 현장에서 노년, 장년층과 대화할 때면 상황이 좀 나았다. 은퇴한 교사나 소싯적에 속요나 시조 좋아하셨던 분들이라 대개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자연이라는 관습적 소재에 대한 친밀도 자체가 젊은 세대와 너무 달랐다.

그들은 사대부가 자연을 대하는 마음을, 자신들이 고향을 바라보는 마음에 유추해서 이해했다. 그들에게 ‘자연=고향’이었고,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사대부들의 자연관에 비추어 공감하곤 했다. 그래서 고향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 몇 편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세대별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다양했고, 고향을 떠났던 이유에는 사회 변동과 격변이 늘 맞물려 있었다.²¹⁾

1 타향살이(고복수, 1934)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뽀아 헤어 보니 / 고향 떠난 십여 년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 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20)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의 구상은 이런 고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 연구 방법론의 재검토」, 『고전문학 교육의 중심과 주변』, 전북대 출판문화원, 2019, 129~132쪽.

21) 이하의 내용은 인천 근대문학관(2015.04.08.)과 서울대 인문대 IFP 심화과정(2019.07.11.) 등에서 강연했던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하였다.

일제 시절 타향살이는 어쩔 수 없이 곤궁한 이민을 떠난 이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내용처럼 들린다. 여기서 늙어가는 청춘에 대한 한탄, 꿈과 그리움의 연계 등은 고전시가에도 더러 등장한다. 다만 그 감각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겠다고 가곡창이나 시조창을 들려주는 것보다는, 이 노래의 처량한 음색을 들려주고 이런 느낌을 떠올려보자는 편이 더 나왔다.

2 고향무정(오기택, 1966)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전옥답 / 잡초에 묻혀 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 멧은 지 오래일세

60년대 산업화의 벽두에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이다. 고향 집이 잡초에 묻혀 있다거나 어부들 노랫소리가 멧었다는 1, 2절의 각 마무리는 시조에서 보았던 황폐한 옛 왕조의 도읍을 떠돌던 장면²²⁾이나, 〈어부가〉 한 곡조와 함께 읽기에 유용했다.

3 고향역(나훈아, 1972)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 이뿐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역 /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22) 이 니 도 |로다 / 이 에 부쳐시니 / 에
 지나 이 눈물 계워 라. (원천석, 『청구영언』 진본 363.)

흰머리 휘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니를 /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역

고향이 황폐해진 이유는 이농 현상 탓이리라. 도시 근로자가 명절에 큰맘 먹고 고향에 가는 모습이다.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는 고향의 소꿉친구와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기다렸다가 반겨주는 백구()²³⁾ 또는 물아일체를 이끄는 다른 자연물과 비슷해 보인다. 고전시가 화자들에게는 자연과 인간 사이가 멀었고, 멀수록 더욱 좋다가도 했다.²⁴⁾ 반면에 여기서는 기차가 고향과 화자의 거리를 줄여주었다. 기차가 처음 등장했던 계몽기 시가도 함께 떠올릴 만했다.

4 흠에 살리라(홍세민, 1973)

초가삼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정든 땅 /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흠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 효도하면서 흠에 살리라

물레방아 돌고 도는 내 고향 정든 땅 / 푸른 잔디 베개 삼아 풀 내음을 맡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흠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 손을 맞잡고 흠에 살리라

이 노래는 이농 현상에 대한 당시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강연에서 설명했다. 고향을 버리지 않고 부모님, 순이와 흠에 묻혀 지내며 고향을 지키라는 말은 화자의 결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의

23) 아 나 왔노라 야 반갑고야 / 도 기 러 줄 알건마 / 이
 시니 여라. (灑, 『 』 20.)

24) 의 히 드니 고기마다 저 인다 / 의 슬 지 자 / 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윤선도, 『고산유고』 48. 여음구 생략.)

바람일 수도 있다. 이런 이상화된 농촌, 향촌의 풍경은 조선시대 훈민가류를 비롯한 교훈 시가의 세상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향을 통해 사대부의 자연관을 유추하고 이해했던 강연 수강생들에게, 그들 세대에도 익숙할 만한 대중가요를 토대 삼아 고전시가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보려고 시도하였다. 어떤 작품을 선택하여 꼭 읽혀야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현재에서 과거로의 ‘매개’ 역할을 할 대중가요를 먼저 정했다. 그리고서 함께 읽을 만한 소재의 작품을 차차 선택해갔던 과정은 나름대로 교육 방법이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노년이나 장년층은 고향을 떠나 자연을 그리워해 본 경험이 있었던 데다가, 옛날식으로 학창 시절에 고전 작품을 많이 배웠던 이들이라 이 방법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젊은 학생들과 고전시가 사이에는 무엇이 그런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²⁵⁾ 얼핏 생각하면 읽는 시가 아닌 듣고 보는 노래와 무용, 결국 콘텐츠화가 답이 아닐까도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결국 고전시가를 주인공으로 삼을 수는 없으리라 판단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표준화, 획일화되어가는 고전시가 교육보다는, 수강생의 경험과 기호를 반영하여 다변화된 교육이 국어국문학과 미래이길 희망하게 되었다.

25)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작품에 대하여 느끼는 시공간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배경지식보다 장르 지식의 더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성과가 있기도 하다. 고정희, 「시공간적 거리감의 활용 능력과 장르 지식 교육」,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362~411 쪽. 여기서는 이 책의 성과와 결론에 공감한다. 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소한의 장르 지식조차 부족한 학습자와의 만남까지도 의식하고자 하였다.

3. 교재 개발 과정에서의 작품 선별과 배제

1) 임용시험 시장을 위한 공저

2장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근래에는 임용시험을 위한 작품 분석 위주의 교재가 출간되고 있다. 임용시험 교재는 국어국문학과와 교육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처럼 과목이 1개뿐이라면 작품을 우선하여 수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교재의 작품 선별과 배제는 실상 국어국문학과와 수업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 현장의 수요와 연구성과의 공유를 겸비하려는 의도는 각 저서의 서문에 드러나기도 했다.

A 57편의 작품을 갈래별로 나눠 한 작품씩 기술했는데, 먼저 작품을 제시한 후 작품을 둘러싼 ‘맥락’과 ‘쟁점’을 살폈다. 작품을 제시할 때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고 행과 연을 나눴지만 가급적 원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맥락’에서는 작품이 생산되고 향유된 맥락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 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고전시가 개별 작품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 ‘쟁점’에서는 작품 이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다룸으로써 맥락 부재의 문학사적 지식이나 자극적인 정보가 중재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용한 지식과 견해가 생겨나는 해석의 역사를 보여줄과 동시에, 이후 본격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비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²⁶⁾

B 중등 교육의 현장에서 의미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학술논문과 같은 작품 해석의 수준과 엄격함은 유지하면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 분량을 줄이고 내용을 풀고 가다듬었습니다.²⁷⁾

26) 엄은열 외(2014), 앞의 책, 6~7쪽.

27) 민족문학사연구소 편(2018), 앞의 책, 6쪽.

[A]는 고전시가 교육을 전공한 3인의 공저이며, [B]는 필자가 기획에 참여한 시리즈에 속한 19인의 공저이다. [A]는 57편을 다루었지만 현대시나 다른 작품과 엮은 경우가 많았고, [B]는 39개 항목이지만 시조 여러 작품을 주제별로 묶어 1개 항목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각자의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A]는 객관적 정보나 지식은 ‘맥락’에 모아놓고, ‘꼼꼼히 읽기’나 ‘엮어 읽기’ 등의 항목을 통해 심화한 내용이나 저자의 판단 등을 살피게 했다. 이렇게 수준별, 내용별로 서술이 구분되어 있어 학습자의 공부 방향이나 의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볼 수 있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을 배려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하면 [B]는 각각이 독립된 글로서 내용의 흐름에 따른 소재목을 붙여 놓았다. 통설과 주관적 학설의 구별이 선명하지 않은 글도 있고, 다른 이의 학설에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A]에 비해 논쟁의 과정이나 연구자로서 신념을 직접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대답이나 다른 형식으로 실었어야 했다. 또한 당초에 선정했던 작품의 원고를 다 받지 못했으며, 많은 이들의 응고가 있었지만 기획 의도를 온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벗어난 원고 또한 있었다.

[A]와 [B]는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으며,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다. 그러나 1개의 수업 기간에 다룬다고 가정했을 때, 500쪽이 넘는 분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A]는 정보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명료하므로 각각을 강독(초급) 혹은 이론(고급) 과목에서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B]는 향가여요 혹은 조선시대 시가로 나뉘어 있을 때 특정 장르와 작품을 깊이 있게 살피기에 유용하게 되어 있다.

결국 [A]는 ‘강독(초급)→이론(고급)’의 위계를, [B]는 ‘향가여요/조선시대’의 구획을 전제하고 있었다. 과목이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상황임에도, 이들 교재는 2장에서 소개했던 지난날 교육과정의 양대 속성을 각각 반영

하고 있었다. 마치 국가 단위의 비자발적인 표준화, 획일화의 경향에 나름대로 맞설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듯하여 소중하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의 방침에 따라 수능과 연계되는 EBS 교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 이 교재에 등장하는 작품을 중등 임용 준비에서 간과할 수 없을 테고,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이 압력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몇 차례 이 교재를 감수했을 무렵, 영·정조 시절 악장이 수록된 적이 있었다. 대학원 수업에서도 접하기 쉽지 않을 작품이었다.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한자도 많은 이 작품을 굳이 실어야 할 이유를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입시에 치인 학생의 부담을 좀 고려하라는 의견을 보태었다. 그러나 그런 의견쯤 묵살하고 그 작품은 끝내 수록되었다. 작품을 선정한 이의 속이야 후련했는지 몰라도, 대개의 학생은 고전시가를 대하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것이다. 또 어떤 때는 낯선 한시가, 언젠가는 어려운 서사무가가 나오기도 했다. 중등교육 나이가 임용시험과 고등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권력을 정해진 기준 없이 그때그때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점도 문제겠지만, 최소한 어떤 작품이 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와 원칙이 절실했다.

[A]와 [B]는 국가적 공인을 받은 책들은 아니지만, 저런 규모의 공저라면 적어도 학계의 합의를 거쳤다고 할 만한 것들이다. 그리고 지난날의 교육과정에 각각 대응하는 개성과 차이 역시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노력하여 선택 그리고 배제한 작품들의 목록은 더욱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각계 수험생들과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2) 단독 저자의 저서에서 유의점

단독 저술에는 저자의 주관이 아무래도 강하게 반영된다. 앞서 소개한 두 권의 공저와 비슷한 시기에, 날것 그대로의 원전 영인과 현대어 역, 참고

문헌 등을 모두 갖춘 본격적인 성격의 단독 집필 교재도 몇 차례 나왔다.

어떤 책은 학생들과의 작용-반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자의 주관 을 강하게 제시했지만 책의 성격상 기존 논의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였다.²⁸⁾ 작품마다 ‘생각할 문제’를 통해 쟁점을 밝히고 주 관을 피력한 점도 특징적이지만, 영인 자료를 통해 고전시가의 실상에 접 근하게 한 점이 근래의 교재에서는 드물지 않을까 한다. 다만 서문에서 밝 혀던 학생들과의 ‘작용-반작용’의 흔적이 더욱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라면 싶었다.

필자 역시 그간 겪어온 학생들과의 ‘작용-반작용’을 떠올리며, 강연 과정 에서 그러했듯 수강생과 고전시가 사이에 매개가 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는 구상을 했다. 여기에 공저 기획 경험에서 아쉬웠던 점까지 돌이켜 보았 다. 이에 앞으로의 교재에서 유의할 덕목은 다음의 3가지라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세대, 20대 초반의 인생 경험과 연결하여 공감대를 얻자.

이 경험과 관련이 적은 작품은 아무리 중요해도 배제하고, 관련이 깊은 작품은 아무리 낯설더라도 선택한다.

배경이나 장르에 관한 지식이 아닌, 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세대와 시대 를 넘어보자.

이들 원칙을 반영하자면 우선 학생들의 경험과 입장을 알 필요가 있었으 므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틈틈이 뒤졌다. 국어국문학과에는 여학생들 이 많았으므로 여성향 사이트의 어조와 댓글 패턴 등에도 유의했다. 그 과 정에서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착안했다. 이는 계량적이거나 일관성을 갖춘 엄밀한 분석이 아니라, 저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기 위한 주 관적, 자의적인 모색에 가까웠다. 눈에 띄게 화려한 콘텐츠를 제작할 여건

28)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다운샘, 2018, 5쪽.

은 못 되었으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또래가 공감하고 경험할 만한 요소를 고전시가와의 ‘매개’로 삼아보려 했다.

- 1) 여성 화자와 주체적 여성상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그런 주체의 미덕을 여성으로서의 특징(이를테면 과거의 현모양처 혹은 팜므파탈)에 제한하기보다, 인간으로서 덕성과 매력에 가깝다고 파악한다. 관련하여 연애 대상이 지닌 강점을 ‘연애 권력’이 크다고도 부른다.
- 2) 문제 해결, 갈등의 전면적 해소보다는, 그런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위안과 공감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현격히 다르다.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태도를 싫어하며, 현실을 도피, 외면하지 않는다.
- 3) 가난과 비혼의 문제에 초연한 듯하면서도 일면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느낀다. 따라서 안빈낙도의 초월성, 이별과 그리움의 일방적, 수동적 관계 등에 공감하기 어렵다.²⁹⁾

이제부터 1)~3)에 유의했던 서술의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겠다.

1) 고전문학에 관한 여성주의적 독법은 특정 학회의 명칭에 직접 드러날 정도로 중시되었다. 고전시가의 여성 화자로 교과서에서는 기녀 시조를 주로 다루었으나, 이별과 그리움의 상황을 현대적 의미에서 주체적이라 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규방가사의 여성 화자 역시 여성적이지만은 않았다. ‘연애 권력’으로나 현실 권력으로나 양반에게 그저 한 대상일 뿐 주체일 수 없었던 화자의 처지를 수업에서 솔직히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작품이 소춘풍의 것이었다.

29) 이상은 몇 년 동안 네이버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화제가 되었거나 인상적이었던 글이나 인용 어구 등에 대한 소감을 정리한 메모에 의하였다. 그때는 근거가 된 글과 어구가 나중에 필요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해당 내용을 갈무리하지 못한 탓에 직접 제시하지 못했다.

도 이오 도 이라.
 죠고만 이 여신이
 두어라 이 다 죠흔이 리라.

수업에서 사용한 의역
 이쪽 양반들도 대단하시고, 저쪽 양반들도 대단하신데
 미천한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군요.
 그만 고민할래요, 다 좋으니 이쪽저쪽 다 모실래요.³⁰⁾

이 작품은 기녀 시조의 상징과도 같은 애정 주제는 일절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양반들의 일시적 애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욕을 먹어야 했던 기녀들의 처지를 보여준다. 양반들이야 이런 태도를 지조 없다고 싫어했겠지만, 기녀들의 자의식과 처지를 솔직하게 보여준다. 〈서경 별곡〉에서 떠나는 서울 귀족 대신 애꿎은 뱃사공에게 화풀이했던 여심 역시, 이런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통해 다시 생각할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소춘풍의 시조를 연구나 교육의 대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연애 역시 일종의 권력관계, 이른바 갑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애 권력’ 관계라 보는 요즘의 시선에 따르면, 소춘풍이 겪었던 강제력의 압박이 다르게도 비친다. 양반 남성을 향한 기녀들의 마음이 ‘시조시화()’ 자료를 읽을 때 초기 연구자들이 떠올렸듯, 그저 낭만적이고 아름답기만 했을까?

이를 여성주의적 독법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사랑이 마냥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연애가 그리 순수하지만은 않은 감정일 수 있다는 현실이 연애 권력이라는 용어에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여성 화자에 학생들이 공감하였다. 이런 번덕스러운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그 과정을 해학적

30) 『해동가요』 주씨본, 139.

여유로 받아치는 강인함은 현대인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매력이기도 하다. 소춘풍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학에 거리를 느끼되 존중하는 반응이었다. 학생들이 공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느낀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했다.

양반에게 갑질을 당하면서도 양반의 애정을 갈구했던 모순은 기녀라는 처지, 교양을 갖춘 노비라는 비극성에 따른 것이었다. 흥랑과 최경창처럼 아름다운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그만큼 드문 아름다움이었으니 문학사에 특기되었다. 황진이의 섬세한 언어와 기녀들의 간절한 짝사랑은, 어쩌면 초기 연구자들의 기호와 취향 때문에 주목받았던 게 아닐까도 싶다.

2) 미래를 낙관하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던 인물로는 텐동어미가 떠올랐다. 중등 교과서에 이따금 수록되어 학생들에게는 의외로 친숙했지만, 교재용 도서에는 일부분만 수록된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도 전편을 다 실을 수는 없었지만, 두 번째와 네 번째 결혼 그리고 주요 내용을 상당 부분 현대어 역까지 실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텐동어미와 청춘과부를 비롯한 화전놀이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에 주목하였는데, 이 ‘공감’을 오늘날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느꼈을 만한 일들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어서 텐동어미는 자신과 청춘과부의 공감(말과 생각)을 각각 봄과 꽃에 비유합니다. 결혼이 봄이고 자식이 꽃이 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벗들이 곧 봄과 꽃이었다는 말인데요. 가난과 시집살이를 비롯한 가혹한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겠지만, 잠깐의 화전놀이에서 만난 사람들이 주는 위안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어렵없는 미래의 꿈이 아니라, 마음 맞는 친구와 큰맘 먹고 시켜 먹는 치킨의 맛이 아닐까요? 그 잠깐의 행복이 바로 봄과 꽃의 화전놀이라는 것입니다.³¹⁾

저 표현은 SNS에서 우상화되다시피 한 ‘치맥’의 한 효과로서 종종 언급

31) 서철원, 『고전시가 수업』, 지식의날개, 2022, 305쪽.

되기도 했다. 필자도 막막했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자신이 언젠가 잘되리란 부질없는 희망보다 마음 맞는 친구와의 일시적 위안과 위로가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경험에 세대 차이 같은 건 없으리라 믿었고, 덴동어미의 화전놀이에서 필자 자신이 느낀 공감을 전달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덴동어미가 개가를 반대했던 태도는 일면 어색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수업에서는 개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남편을 위한 수절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재혼보다는 비혼을 지속하라고 권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의 현대문학에서는 자유연애가 화두였지만, 저물어가던 고전시가에서 연애가 아닌 비혼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혼이라는 현대 사회의 한 추세를 통해 덴동어미라는 캐릭터가 지닌 오늘날의 가치 또한 학생들과 생각해 보았다.

3) 앞서 제시했던 작품 선별 및 배제의 기준(항목②)과도 연동되는데, 이에 따라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가난과 애정 주제 작품은 제외하였다. 송강가사를 아예 다루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 수업에서도 송강가사를 안 읽으면 2주 정도는 여유가 생겨 다른 작품을 더 읽을 여유가 생겼다.

그 대신 늦잠 잤다가 부모님께 혼나는 상황은 다들 겪었을 테니, 〈사모곡〉의 “아빠 미워, 엄마 좋아”라는 태도가 도출된 상황을 이에 비추어 설명하기도 했다. 〈부새곡〉의 화자가 낯선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혐오감을 함께 지닌 이중적인 태도를 현대 여행자의 태도와 비교하는가 하면, 양반들의 자연관이 점차 현실적으로 분화하는 상황을 취업과 은퇴의 과정이 점차 난감해지는 현 상황에 빗대었다. 늦잠, 여행과 취업, 은퇴 등은 학생들의 경험 혹은 관심사와 가까웠고, 고전시가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학술적 어휘에 비하면 거리감이 덜한 것이기도 했다.

결국 전체적인 서술은 실제 수업처럼 구어체 존댓말로 하되, 특히 연구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것들만으로 엮었으며, 문장의 길이 역시 3행까지 길

어지지는 않게 조정하였다. 따라서 3장 1절의 공저들과는 달리, 이 책의 표현과 서술은 임용시험 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머리말에서 언급했으므로 오해할 독자는 없으리라 예상한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에서 배제했던 ‘지식’ 부분에 관한 속편으로 보충한다면 다행이겠다.³²⁾

4. 배제와 선택의 사이에서

빠짐없는 꼼꼼한 전달이 미덕이었던 때도 있었다. 『한국문학통사』(조동일)의 방대함은 그런 시대의 소출이었다. 그러나 과목이 축소되고 교육과정은 단순화, 획일화되어간다. 그에 따라 고전시가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어렵고, 설령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학생들은 국어국문학 하나만 전공하지 않으니 그럴 시간도 없다.

자연과 연애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과거 교육과정의 규모를 지속하기 어렵다. 독립운동의 하나로 현존하는 모든 작품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신념이나, 사대부 양반 남성의 취향에 따라 선별된 작품이 언제까지 교육과정과 교재에서 크게 자리할 수는 없다. 예전처럼 고전문학을 많이 배우지도 않는데 말이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생각을 고려하여 교육과

32) 심사 과정에서 “작품의 해석(해독)의 문제나 학계에서 해당 작품이 가지는 논쟁 지점에 대한 논의, 또는 작품을 바라보는(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시선의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며, “학생들과의 ‘경험/공감대 형성’에 치중하여 저서를 구성한다면 자칫 주객전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평도 있었다. 논쟁 지점이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의 접근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이론 또는 심화 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 역시 속편에 해당할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단, 장차 국어국문학을 유일한 전공으로 살려 살아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무엇을 줄 수 있을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겠다.

정을 구성하는 일은 그냥 시류에 따르는 수동적인 판단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초급 과정에 우선하고, 그럴 수 없게 된 작품은 대학원 이상의 본격적인 학문의 과제로 선별하자는 쪽이다. 2장 2절에서 제시했던 표에 따르면 국어국문학과가 독립된 대학의 2/3 이상이 고전시가 과목을 1과목만 운영하거나 폐지한 상황에서, 초급 과정에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목적은 생존을 위한 필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꼭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닐지라도, 학계에서 작품의 배제와 선별을 새로이 구상할 필요가 있다. 2권의 공저는 그 가능성을 각각의 개성을 통해 보여주었고, 단독 저서는 나름 그에 대한 보완과 저자의 주관에 따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설계만으로 교육이 종결되는 것도 전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다. 세상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고전의 가치도 있다. 다만 그것에 기성세대의 취향만을 반영하여 강요하진 못하겠다.

참고문헌

고정희, 『시공간적 거리감의 활용 능력과 장르 지식 교육』,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 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3, 362~411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표준교육과정’ (<https://www.cb.or.kr>)

권태웅, 「국어사랑 나라사랑-공공언어로서의 법령」, 『법제』, 법제처, 2022, 7~9쪽.

김명준,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다운샘, 2018, 5쪽.

나정순, 『우리 고전 다시 쓰기 - 고전시가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삼영사, 2005, 1~355쪽.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고전문학작품론 3: 고전시가』, 휴머니스트, 2018, 1~628쪽.

박재민, 「교과서에 나타난 향가 교육의 문제 - 「서동요」의 ‘ ’와 「찬기파랑가」의 ‘조약돌’을 대상으로」, 『한국시가연구』 38, 한국시가학회, 2015, 73~100쪽(박재민, 『해독과 해석-향가, 여요, 시조, 가사』, 태학사, 2023, 313~335쪽 재수록).

서철원, 『고전시가 수업』, 지식의날개, 2022, 305쪽.

염은열 외,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작품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520쪽.

작자 미상, 「지가 무슨 신선이랍시고 감치는 고전시가 진짜 개역겹지않냐」(디씨 인사이드 문과 마이너갤러리, 2021.11.11.)

조규익 외,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2015, 29~226쪽.

조윤제, 『 』, 탐구당, 1987신판(초판 동국문화사, 1949), 9쪽.

최홍원, 『고전문학 경험교육론』, 역락, 2015, 15~179쪽.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 연구 방법론의 재검토」, 『고전문학 교육의 중심과 주변』, 전북대 출판문화원, 2019, 129~132쪽.

ABSTRACT

Factors to choose from or exclude from the education of
Korean classical poetry at the university

Seo, Cheol-won

In the past, classical poetry education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d some autonomy compared to the middle and ordinary classes, which were standardized and uniformed according to the national evaluation. However, the nationalistic emotion that early Korean literature scholars would have felt while facing the surviving classical works does not gain sympathy from today's students. Even some classical writers have become the subject of satire and ridicule.

In the past, students learned classical poetry step by step from beginner to advanced, or examined it deeply according to the times and genres. In addition, each department had a choice, including other subjects. However, more than two-thirds of Korean literature departments currently operate only one subject. In lectures outside the lecture room, popular songs about hometown were used as a medium to elicit responses to classical poetry. However, it was still a task to gain sympathy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 the classroom.

One of the two recently published publications shows the trend of the times, from beginner to advanced, and the first book shows the trend according to the times. As a collaboration of academia, the list of works by these co-authors is worth referring to.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sistent textbooks written by one person as well as the diversity of co-author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examples of work analysis and response that can respect students' experiences and gain empathy.

Key Words

Korean classical poetry, literary education, classical poetry education, educational methodology, university education

논문투고일: 2023.04.15.

심사완료일: 2023.05.02.

게재확정일: 2023.05.04.